

### 승적·신규사찰 등록... 선학원 독자 행보

(재)선학원, 10월 1일부터 관련 업무 개시 공고

**조계종, 이사장 법진 스님 '별반' 양측 관계 개선 촉구 주장 제기도**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10월 1일부터 승적과 사찰등록업무 개시한다. 조계종 법인 등록을 거부하고 사실상 독자 행보를 가겠다는 것이다.

선학원은 9월 12일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법인 등록 거부를 재차 확인하고 승적과 사찰등록업무를 개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은 9월 16일부터 승적업무 개시와 신규사찰 등록을 시작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선학원은 10월 1일부터 창건주 및 분원장과 도제들을 대상으로 승려증을 발급하는 등 독자적으로 승적업무무를 취급하게 된다. 또한 소속 승려의 교육과 새로운 승려 양성을 위한 계단도 독립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선학원은 신규사찰 등록도 공고했다. 대상은 선학원 설립 이념과 취지에 부응

하고 재단 정관 동의하는 사찰이며, 개시 일자 10월 1일부터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초심회계원(원장 해자)은 9월 15일 열린 제116차 심판부에서 법진 스님에게 별반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진 스님은 조계종의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거부하고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했고 조계종 호법부는 이를 해종행위로 규정했다.

이 같이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종단에게 강경보다 상생적 대응을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총회 총책 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은 9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선학원이 이사회 결정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고집한다면 종국에는 종단 재산의 망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분종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조계종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숙고하여 조계종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 동국대에 韓 최대 뮤지컬 공연장 선다

설앤컴퍼니와 4일 협약... 1900석 규모

동국대(총장 김희옥)에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들어선다. 김희옥 총장은 9월 4일 부산 로터스홀에서 D-씨어터 컨소시엄(주관사 설앤컴퍼니) 설도윤 대표를 만나, 뮤지컬 전용 공연장 및 교육시설 건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수영장 부지를 개발, 1900석 규

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 교육시설 및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동국대에 들어설 공연장은 뮤지컬 전용 공연장으로는 국내 최대인 1900석 규모로 건립된다. 공연장이 완공되면, 동대문DDP를 시작으로 장충체육관과 국립극장에 이어 한남동 블루스퀘어로 연결되는 서울시 문화벨트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 불교계, "세월호 광장 24시간 합류"

조계종 노동위 등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법회로 동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계가 재협상에 나선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얼마 전 출범한 2기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음, 이하 노동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노력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노동위 스님과 집행위원들은 9월 22일부터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 합류해 24시간 상주하며 기도과 절, 법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9월 22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의 간단한 입재식을 시작으로 노동위는 향후 세월호 광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

다.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실천승가회(상임대표 퇴휴)도 함께한다.

노동위는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불교는 언제쯤 참여할 것인지 묻는 일반인과 종교인들이 많았다"며 "세월호 사고 5개월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촉구이 지금이나마 힘을 보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심주완) 역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단식을 결의했다.

9월 26일에는 팽목항을 방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실종자 귀환을 위한 기도를 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 규제 개혁에 밀린 전통사찰 보존

## 정부, 지난 8월 '역사 보존구역 300m로 축소' 입법예고

정부가 전통사찰을 비롯해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역사문화보존구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입법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8월 21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을 비롯한 역사와 문화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이번 정부의 역사문화보존구역 축소 시행령이 통과되면 앞으로 전통사찰 인근 지역의 난개발이 심화될 것이라 우려가 높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사찰 500m이내 지정되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사찰 외곽으로부터 300m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또 지정 때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재

산권을 규제하는 내역으로 보고 규제 철폐를 골자로 회의를 열어왔으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토지소유권과 같은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업계획에 대해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형태가 전통사찰이나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허가 대상에는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용도 변경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9월 17일 문화재청에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조계종의 공문에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300m로 줄

이는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과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하는 부분이 전통사찰 측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 입법 통과시 사찰 난개발 우려
- 지역민 재산 보호만 증점 두고
- 전통 보존 뒷전... 불교계 반발
- 조계종, 문화재청에 공문 보내
- 구역 축소 반대 입장 분명히 해
- "현행대로 가야 입법 취지 살아"

전통사찰보존법 중 전통사찰보존구역은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하면 지정해야 하지만, 역사문화보존구역의 경우 요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역도 500m 이내로 임의적으로 정해지기에 규제라는 시각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의 가치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지만 아무래도 보존구역의 상한선이 축소되면 수행환경이 침해받고 사찰 주변이 난개발이 될 위험이 있다. 원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 스님도 "시행령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전통사찰들과의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시행령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문화부는 오는 9월 2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인천아시아게임 동안 운영되는 선수촌 내 불교법당.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 "아시아 게임 선수들 불교 법당서 힐링하세요"

불교국가 선수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질 불교관이 마련됐다. (사)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중연)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경기에 참가하는 불교국가 선수 임원들이 신앙생활과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불교관을 운영한다. 조계종 포교원, 인천불교조계종사암연합회 등 불교단체들은 불상과 후불명화, 다기(茶器)를 비롯해 템플스테이·불교 명문홍보책자를 비치하고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불교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다도체험, 만다라그리기, 명상, 연꽃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글= 이은은 기자, 사진 제공=인천불교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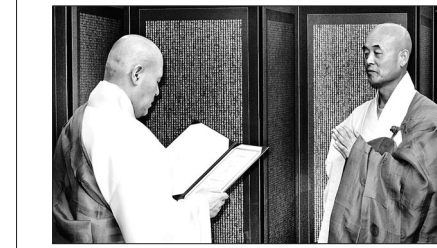
### "문중 화합 선출, 교구발전으로 이어져"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에 종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17일 경주 불국사 신임 주지 종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종우 스님은 9월 5일 불국사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지 후보로 선출됐다. 자승 스님은 "문중 화합을 통해 원만하게 신임 주지를 선출했다. 오랫동안 불국사 선원을 이끌어 온 만큼 앞으로도 교구를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선원에서 정진하다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면서 "전임 주지셨던 회주 성타 스님과 관장 종상스님이 그동안 불국사를 탄탄하게 잘 이끌어 온 만큼, 그대로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직영사찰에서 해제된 직할사찰 서울 약사사 주지에 무연 스님을 순천 선암사 주지에는 법원 스님(전 호법부 조사국장)을 임명했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이 9월 17일 불국사 신임주지 종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포교사단 팔재계 수계 법회 연다

9월 27~28일 조계사서...21일엔 울산지역단 창단

포교사단(단장 광명희)의 연례 행사인 8재계 수계실천 대법회가 9월 27~2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재가자인 포교사들이 하루 만이라도 8재계를 지키면서 출가생활을 체험하는 행사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해는 전국의 4천여 포교사와 함께 5천여 전국 포교단체 소속 재가불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첫날인 27일 오후 5시 대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입재식 △제8기 전문포교사 및 19기 신규포교사 품수식 △붓다로살자 동참선언 △8재계 수계식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촛불철야정진을 비롯해 새벽예불과 보살계 수계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품수식은 일반포교사 752명, 전문포교사 79명, 국제포교사 28명이 품수를 받는다.

광명희 포교사단장은 "출가한 스님들과

같이 재가의 불교신도들도 일정기간 동안 청정행을 닦게함은 물론 포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 및 바람직한 포교사의상을 확립하고, 자리이타 정신을 통해 사회적 실천의 원동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울산지역단을 창단했다. 울산·경남지역단로 통합·운영해오던 포교사단은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통도사에서 울산지역단 분단 추진회의를 거쳐 9월 5일 울산지역단장으로 김미경씨를 선출했다. 울산지역단 창단식은 9월 21일 오후 2시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이은은 기자

# 공 고

**재단법인 선학원은 지난 9월 12일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승적 및 신규사찰 등록 업무를 10월 1일부터 개시한다는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승적업무 개시 안내**

가. 대상

- 1) 재단 승려 창건주 및 분원장과 도제
- 2) 신규등록 사찰의 승려 창건주 및 분원장과 도제

나. 개시일자

불기 2558(2014)년 10월 1일부터

**2. 신규사찰 등록 안내**

가. 대상

- 1) 선학원 설립이념과 취지에 부응하는 사찰.
- 2) 본 재단 정관 제3조(목적)와 제4조(사업)에 찬동하는 사찰

나. 개시일자

불기 2558(2014)년 10월 1일부터

※ 선학원 승려증 발급을 원하시는 창건주 및 분원장과 도제들은 선학원 홈페이지(www.seonhakwon.or.kr)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재단 사무처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8년 9월 16일

##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